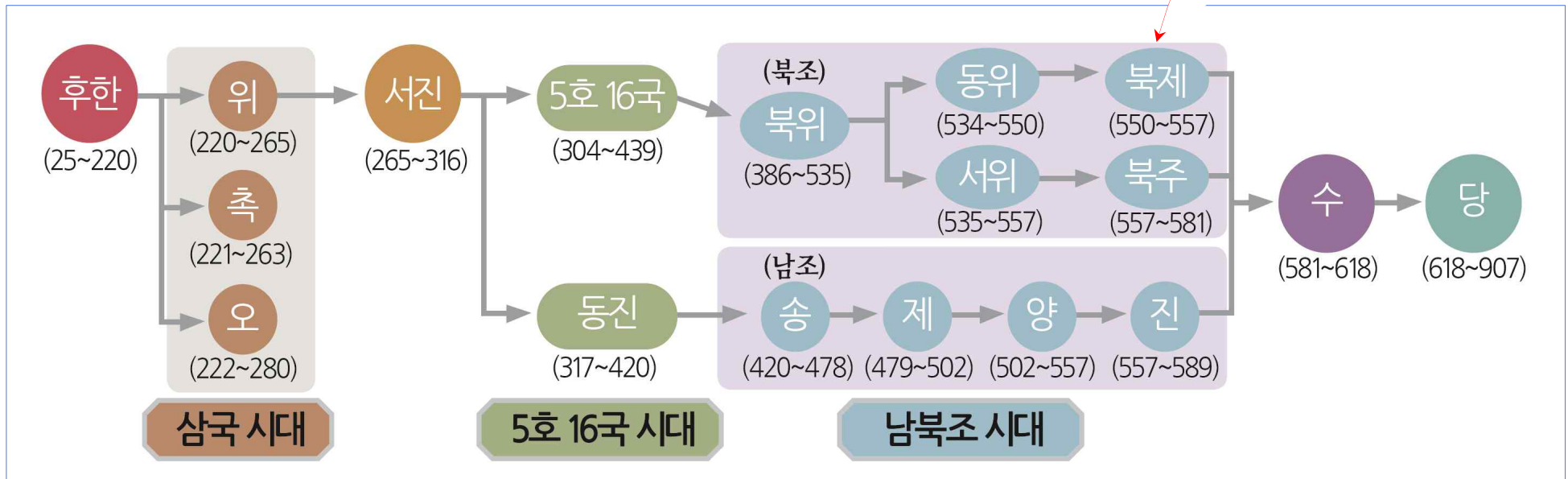




- ① BC, 207  
BC, 194
- ② 진국의 한왕
- ③ 이타스케 유적
- ④ BC, 37
- ⑤ BC, 18
- ⑥ 304 ~ 439
- ⑦ 317 ~ 589
- ⑧ 삼국 항쟁기 도왜인 전방후원분 씨성 제도

▣ 인구 이동의 요인 : 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② 인구 증가, ③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④ 국가 사이의 전쟁

사명감 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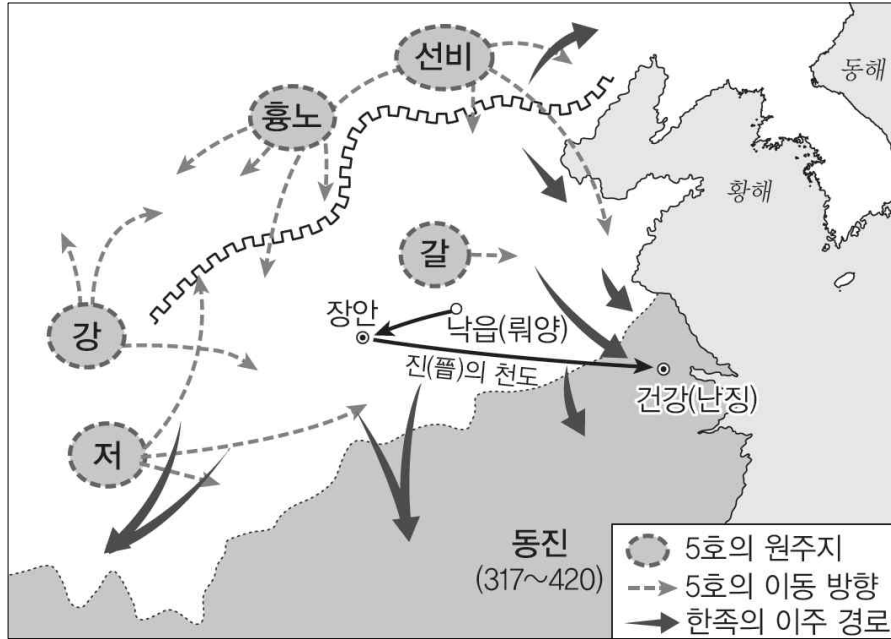
(420 ~ 439 ~ 589)

▣ 인구 이동

선비, 흉노 등의 북방 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 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한쪽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다. 한쪽은 이들을 5호(五胡, 흉노·선비·갈·저·강족)라고 불렀다. 그 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연(337 ~ 370)과 후연(384 ~ 407)은 요서와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라오둥(요동) 지역을 두고 패권을 겨루기도 하였다.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439년 선비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세운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다.

한족 정권은 5호에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창장 강 이남의 강남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317년 건강(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우고, 화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였다. 이후 강남 지방에는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들어서서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하였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4세기



5 ~ 6세기



▣ 중원[5호 16국 ⇨ 동진 건국 ⇨ 북위 건국]

: 5호 16국 시대(화북, 304 ~ 439), 북위 건국(탁발씨, 386 ~ )  
 : 팔왕의 난(291 ~ ), 영가의 난(307 ~ ), 한족의 강남 이주(동진 건국)

▣ 한반도[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태왕(㉑), 재위 391 ~ 413]

: 근초고왕(㉒), 재위 346 ~ 375), 백제의 전성기  
 : 불교 수용 → 고구려(from 전진, 372), 백제(from 동진, 384)  
 : 고구려 → 낙랑 축출, 313, 신라 지원(400)

▣ 일본 열도

: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성장(도래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의 조성  
 : 칠지도 전래(369)

▣ 중원[남북조 시대 ⇨ 수 건국(581) ⇨ 과거제(587) ⇨ 진(陳) 멸망(589)]

: 북위의 5호 16국 통일(439 ~ ), 강남의 송(420 ~ ) → 남북조 시대  
 : 북위 효문제(재위 471 ~ 499)의 호한융합 정책 실시  
 ↳ 균전제(485), 삼장제(인장·리장·당장), 한화 정책(호어·호복 금지, 원씨)  
 : 돌궐의 유연 격파(552) ← 북주·북제의 혼인 경쟁

▣ 한반도[백제 무령왕(㉓), 재위 501 ~ 523), 신라 진흥왕(㉔), 재위 540 ~ 576]

: 고구려 장수왕(㉕), 재위 413 ~ 491) →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 수립  
 : 신라 ~ 남조의 양(梁)과 수교(백제의 도움, 521), 무령왕릉 축조(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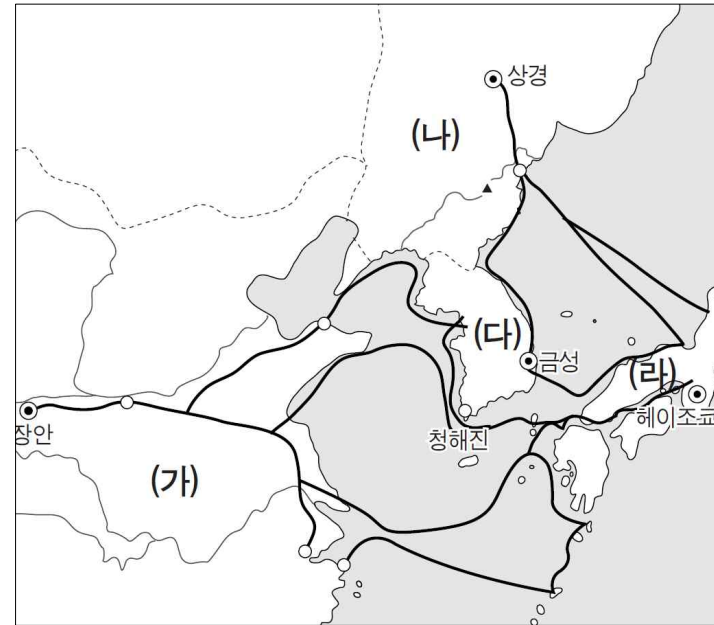
▣ 일본 열도[쇼토쿠 태자(574 ~ 593 ~ 595 ~ 622)]

: 스에키(5세기, 백제·가야), 불교 전래(from 백제, 552), 아스카 문화

7세기[(가) \_\_\_\_, (나) \_\_\_\_]



8세기 이후[(가) \_\_\_\_, (나) \_\_\_\_, (다) \_\_\_\_, (라) \_\_\_\_]



■ 중원[대운하 개통(610) ⇨ 살수 대첩(612) ⇨ 당 건국(618 ~ 907)]

: 수 멸망(618) → 당(唐)의 재통일

■ 한반도[삼국 시대 ⇨ 신라의 삼국 통일(676)]

: 돌궐 + 고구려 + 백제 + 왜 ⇨ 당 + 신라(648)

: 백제 亡 → 백강 전투 → 고구려 亡 → 안동도호부

■ 일본 열도[호류 사 창건(601 ~ 607)]

: 견수사(607), 견당사(최초, 630) 파견, 다이카 개신(645)

■ 돌궐

: 동돌궐(583 ~ 630, 안북도호부), 서돌궐(583 ~ 657), 쉐르 테긴 비(732)

■ 토번

: 라싸, 송첸캅포, 문성공주[당 태종(재위 626 ~ 49), 640], 토욕혼 정복(663)



■ 중원

: 당(唐, 618 ~ 907), 동아시아 문화권(한자·유교·불교·율령) 형성  
↳ 안남도호부(679 ~ 862), 아베노 나카마로 입당(717)

■ 한반도[남북국 시대]

: 통일 신라(676 ~ 935)

: 발해(698 ~ 926)

■ 일본 열도[나라 ⇨ 헤이안 시대]

: 당(唐)의 문물 수입

↳ 견당사(630 ~ 894)

: 다이호 율령(701)

: 헤이조쿄 천도(나라, 710 ~ 794)

■ 화번공주(和蕃公主)

▷ 흉 노 : 왕소군(BC. 2C)

▷ 돌 궐 : 안의공주(수, 597)

: 의성공주(수, 599)

: 형양공주(당 태종, 7C)

▷ 토 번 : 문성공주(당 태종, 640)

▷ 위구르 : 함안공주(당 덕종, 808)

연표 정리

인구 이동과 지역 국가의 성장

280년	291년	___년	307년	___년	346년	___년	413년	___년	___년	
진(晉), 통일	팔왕의 난	5호 16국 시대	영가의 난	동진 건국	근초고왕 즉위 ( ~ 375)	북위 건국 ( ~ 534)	장수왕 즉위 ( ~ 491)	송(宋) 건국	북위 ↳ 5호 16국 시대 통일	
460년	471년	479년	485년	___년	502년	525년	540년	545년	550년	
원강 석굴 사원	___ 즉위( ~ 499) : 한화 정책	제(齊) 건국	___ 실시 (均田制)	북위 ↳ 튀양 천도	양(梁) 건국	무령왕릉 축조	진흥왕 즉위( ~ 576)	돌궐 ~ 서위의 동맹	북제 성립( ~ 577)	
552년	557년	562년	574년	___년	583년	___년	___년	___년	___년	
___ ↳ 유연 격파	진(陳) 건국 북주 성립( ~ 581)	신라 ↳ 대가야 병합	쇼토쿠 태자 생( ~ 622)	수(隋) 건국	동돌궐( ~ 630) 서돌궐( ~ 657)	수(隋), 진(陳) 정복 ↳ 남북조 통일	쇼토쿠 태자의 섭정	호류 사 창건 견수사, 국서 전달		
612년	___년	626년	629년	___년	640년	645년	___년	___년	___년	
살수 대첩	당(唐) 건국	당 태종 즉위 ↳ 재위( ~ 649)	현장 : 인도 여행	견당사 최초 파견 안북도호부 설치	___공주 ↳ 토번, 송첸캄포	안시성 전투 다이카 개신	나·당 연합	백제 멸망	토번의 토욕혼 정복 백강(구) 전투	고구려 멸망 ↳ 안동도호부
671년	___년	679년	___년	___년	717년	719년	732년	737년		
쓰쿠시 도독부 설치 ↳ 다자이후	신라, 당 축출 ↳ 삼국 통일	안남도호부 설치 ( ~ 862)	대조영, 진(震) 건국 ↳ 발해(713)	헤이조쿄 천도 ↳ 나라( ~ 794)	아베노 나카마로 ↳ 입당(入唐)	발해 무왕 즉위 ↳ 재위( ~ 737)	궐 테긴 비	발해 문왕 즉위(재위, ~ 793) ↳ 당 → 발해 국왕( ___년)		

## ① 5호의 이동과 동진의 건국

진(晉) 회제는 **영가** 5년(311)에 흉노가 세운 전조의 유충에게 사로잡혔다. 이듬해 가필 등이 이미 진왕(秦王) 사마염을 받들어 황태자로 삼고 장안에 도읍을 두었지만, 아직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다가 영가 7년(313)에 이르러 회제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황제를 칭하였으니, 이가 민제이다. 민제는 건흥 4년(316)에 유요에게 항복하였다. 이듬해 원제가 건강(난징)에서 진왕(晉王)을 칭하였지만 역사 제위에 나아가지 않다가, 민제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황제를 칭하였다.

## ② 효문제의 한화 정책(『천재·금성·미래엔·비상 교과서』, p.49·50·42·44)

- 효문제가 말하기를, “…… 이제 북방의 언어(선비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토록 한다. 서른 살 이상인 사람은 습관이 굳어져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서른 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 올바른 언어에 익숙해지면 풍속이 새롭게 교화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 수도에 머물던 관료들에게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호복(호족 복장) 금지 조치를 어기고 있는가?” 라고 꾸짖었다.

- 위수, 『위서』 고조 효문제 본기

## ③ 도왜인의 이주(『비상 교과서』, p.25)

- 덴무 10년(682), 삼한(三韓)의 사람들에게 조를 내려 “…… 귀화한 첫해에 함께 온 자손도 아울러 역의 부과를 모두 면제한다.” 고 하였다.
- 덴무 14년(686), 당인(唐人), 백제인, 고구려인 147인에게 작위를 주었다. …… 귀화해 온 고구려인들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 『일본서기』 권 28

## ④ 백강 전투(『미래엔 교과서』, p.45)

백제(부흥군)는 적이 계획한 바를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장수 여원군신이 용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여러 장군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에 진을 쳤다.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싸웠지만 불리하여 후퇴하였다. 당군은 좌우에서 수군을 총동시켜 협공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이 패하였다.

- 『일본서기』 권 27

**Check!**

기원 전후 ~ 8세기경의 집단적 인구 이동

**부여족**

- 송화 강 ⇨ 동가 강 ⇨ 한강
- 토착 세력과 연합
- : \_\_\_\_\_, 백제 건국

**선비·흉노 등 호족(胡族)**

- 만주·몽골 ⇨ \_\_\_\_\_ 지방으로 이동
- 호족과 한족의 융합
- 5호 16국과 북조 국가 건설

**한족(漢族)**

- 화북 ⇨ 창장 강 이남(\_\_\_\_\_)
- 토목 기술 전파

**트라이진(渡來人)**

- 한반도, 강남 ⇨ 일본 열도
- \_\_\_\_\_ 정권 성립에 이바지
- \_\_\_\_\_ 문화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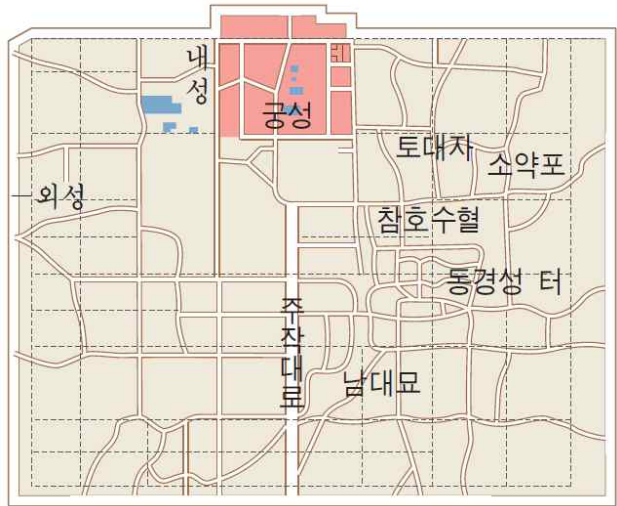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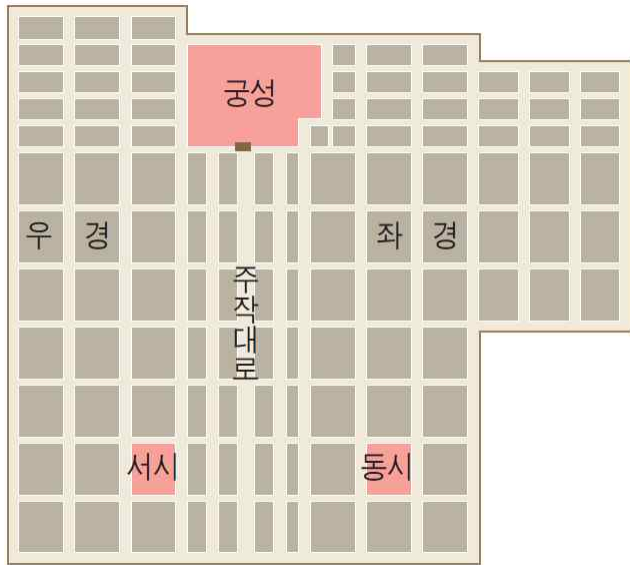
당(唐) 대의 문화 교류



〈당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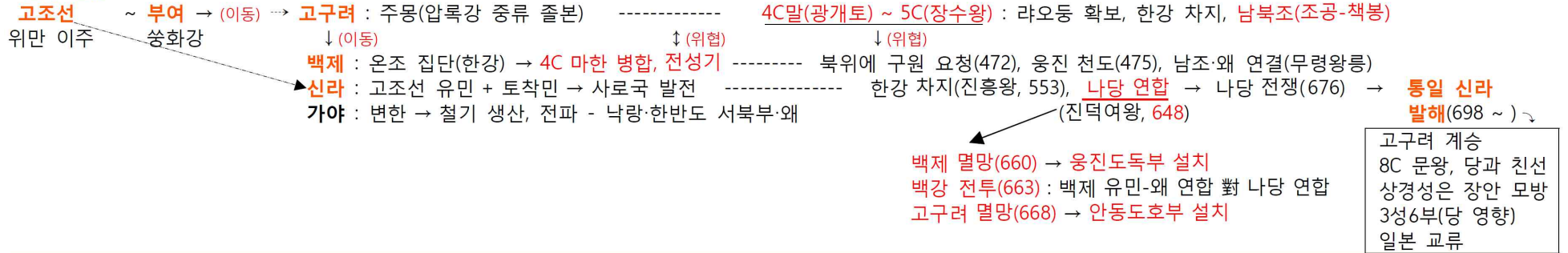
〈나라의 헤이조쿄〉

사명감 중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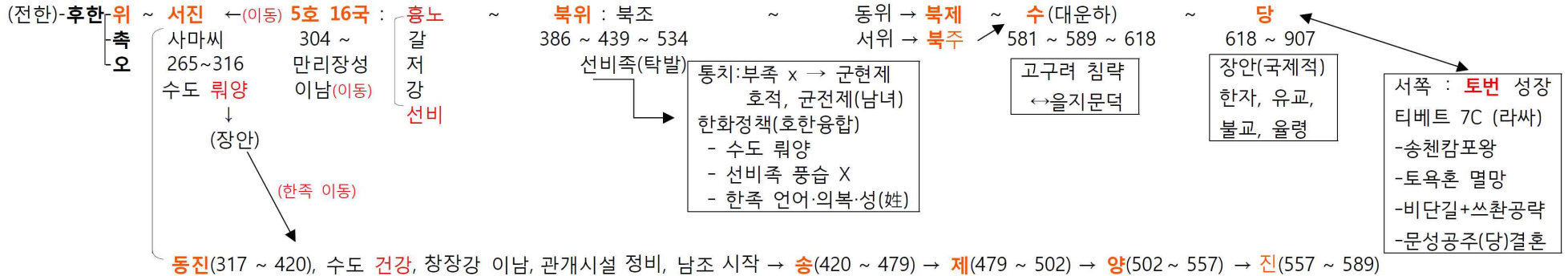
Summary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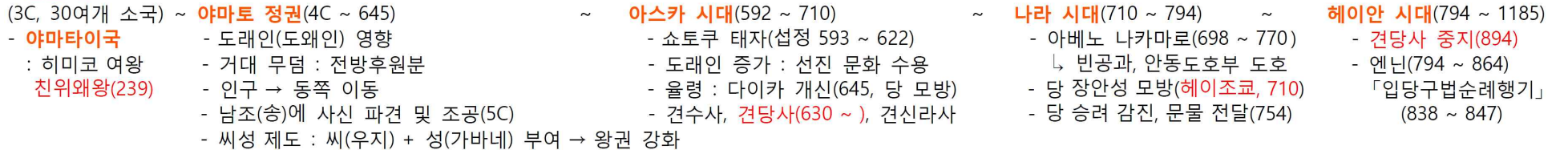
• 만주·한반도



• 중국 북방~화북~양쯔강 이남



• 일본 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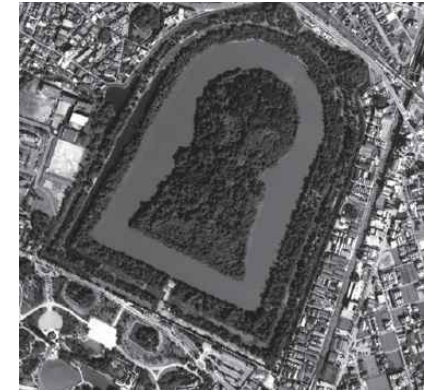


▣ \_\_\_\_\_의 멸망(668)  
 보장왕이 천남산을 보내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백기를 들고 (당의)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하였는데 …… (당) 고종이 (고구려) 38,300호를 강남·회남·산남·경서 등의 빈 땅으로 옮겼다.



**개념 Check**

- ① ( )의 주몽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방으로 남하하여 고구려를 세웠다.
- ② ( )가 성장하면서 정권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생기자, 온조는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
- ③ 흉노 등 북방 민족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자, 진(晉)의 한족이 창장 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317년에 ( )을 건국하였다.
- ④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왜로 이주한 이주민을 ( )이라 부른다.
- ⑤ 4 ~ 7세기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은 ( ) 정권이 성립되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⑥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인 ( )을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다.
- ⑦ 439년 화북을 통일한 ( )는 효문제 때 한화(호한융합) 정책을 통해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 ⑧ 400년 ( )는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치고 가야 지역까지 공격하였다.
- ⑨ 남북조를 통일한 국가인 ( )는 4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⑩ ( )의 송첸캠포왕은 비단길과 쓰촨 지방을 공략하여 당(唐)을 압박하였다.
- ⑪ 645년 왜에서는 나카노오에 황자 주도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한 ( )이 단행되었다.
- ⑫ 663년 왜는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 ) 입구에서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 ⑬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698년에 ( )를 건국하였다.
- ⑭ 일본은 당(唐)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나라에 ( ), 교토에 헤이안쿄를 건설하였다.



〈다이센 고분(5세기 중엽)〉

▶(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성립과 발전>

선비족의 건국    ➡    화북 지역 통일    ➡    평성에서 튀양으로 천도    ➡    (기)

- ① 중원의 국가가 바지를 입고 의자를 사용하는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 ② 흉노에 화번공주를 보내는 등 유화 정책을 표방하였다.
- ③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였다.
- ④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한족의 성씨 사용과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호한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의 양제는 남녀 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운하를 만들었다. 뤼양 서쪽 황제의 정원에서부터 곡수낙수를 끌어들이어 황허 강에 이르르게 하고, 황허 강의 강물을 끌어들이어 화이하 강과 바다로 통하게 만들었다. - 『통전』
- 살수에 이르러 □(기)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고구려 군사가 후방에서 적군의 후속 부대를 공격하였다. 여기에서 적장 우둔위장군 신세웅이 전사하였다. 이에 여러 부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건잡을 수 없게 되었다. - 『삼국사기』

- 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남비엣과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 ③ 백제, 왜와 연결하여 당을 견제하였다.
- ④ 사상 통제를 위해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 ⑤ 진(陳)을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가), (나) 시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백제는 고구려가 원조할 것을 믿고 자주 신라를 침략하였는데, 신라왕 김춘추는 표문을 올려서 구원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소정방을 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수군과 육군 10만으로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 또한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총관으로 삼아서 신라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와 세력을 합치게 하였다. - 『자치통감』
- (나) 29일에 이근행이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도망하게 하고는 전마 3만 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그 정도 되었다. …… 사찬 시득이 신라의 수군을 거느리고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 『삼국사기』

- 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일본에서 헤이조쿄(平城京)가 건설되었다.
- ③ 베트남 지역에서 반랑국이 발전하였다.
- ④ 고구려가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쳤다.
- ⑤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였다.